## 진평왕[眞平王] 선대(先代)를 이어 통일의 기틀을 마 련하다

미상 ~ 632년(선덕여왕 1)



삼국사기 진평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 1 개요

진평왕(眞平王)은 신라의 제26대(재위: 579~632) 왕이다. 진흥왕(眞興王)의 손자(孫子)이며, 숙부(叔父)인 진지왕(眞智王)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이한 용모에 체격이 매우 컸다고 전해진다.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다. 진평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선대(先代) 왕들의 정책을 이어 신라의 행정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 2 커다란 아이, 진평왕의 왕위계승

진평왕의 성은 김(金)씨이며 이름은 백정(白淨)이다. 관련사료 『삼국유사』에는 왕의 이름을 따서 백정왕(白淨王)으로 전하기도 한다. 관련사료 아버지는 진흥왕의 태자 동륜(銅輪)이며, 어머니는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의 딸인 만호부인(萬呼夫人) 김씨이다. 어머니 만호부인은 만녕부인(萬寧夫人)이라 쓰기도 한다. 진평왕의 왕비는 복승갈문왕(福勝葛文王)의 딸인 마야부인(摩耶夫人) 김씨이며, 관련사료 『삼국유사』에는 승만부인(僧滿夫人) 손(孫)씨가 후비(後妃)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진평왕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이한 용모를 가졌으며, 신체가 매우 컸다고 한다. 관련사료 신체가 얼마나 컸는지 『삼국유사』에는 그의 신장이 11척이며, 내제석궁(內帝釋宮)에 행차했을 때 돌계단을 밟아 세 개를 한꺼번에 부러뜨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관련사료

진평왕의 아버지인 동륜은 566년(진흥왕 27년)에 태자에 올랐으나, 관련사로 왕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572년(진흥왕 33)에 죽었다. 관련사로 진흥왕이 사망하자 동륜태자의 동생이자,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사륜(舍輸)이 왕위에 오르니 바로 진지왕이다. 관련사로 진지왕은 진흥왕을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사망하였다. 관련사로 이에 진지왕의 조카이자 동륜의 아들인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조카였던 진평왕이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서는 진지왕이 주색에 빠져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워, 나라 사람들(國人)에 의해 폐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신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평왕의 왕위